



도시민구단이 골치덩어리에 머물지 않고 당당히 K리그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프로구단다운 경영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수익구조 다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내년 시즌 클래스(1부 리그) 승격이 확정된 대전 선수단이 11월 8일 한밭운동장에서 열린 챌린지(2부리그) 우승 시상식에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돈 벌 줄 아는 경영자를 영입하라

스포츠동아 축구기획 | 도 · 시민구단, 변해야 산다!

글 쓰는 순서 >>>

- ① 비전을 살려라!
- ② 인사가 만사다!
- ✓ ③ 경영 마인드를 갖춰라!
- ④ 구단-지자체-단체장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한국프로축구는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일대 변화를 맞이했다. 프로축구단 창단 붐이 일어났다. 대기업 등 든든한 모기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시민공모주를 통해 탄생한 도시민구단들이 대거 등장했다. 지난 10년간 도시민구단의 수는 10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출발 탓인지 여전히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구단은 빚에 허덕이면 선수단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남도가 경남FC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구단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존폐의 기로에 선 도시민구단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스포츠동아는 도시민구단을 낱알이 해부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자치단체장 앞세운 지역기업 스폰서 공략 한계
'최대한 벌어서 쓰자' 경영자 마인드 변화 필요
수익원 확대·수익구조 다변화 노력만이 살 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나 A매치는 종종 보는데, K리그는 좀....” K리그 A도시민구단의 마케팅 책임자 B가 최근 가장 많이 접했던 이야기다. 그는 내년 시즌 스폰서를 잡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지만, 소득은 '제로(0)'였다. 아직까지 스폰서 계약을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미팅 내내 기업과 구단, 양측의 논리는 평행선을 달렸다. 기업 담당자 C는 “K리그 인기가 좋지 않아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B는 “스폰서 수입으로 좀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그 덕분에 관중도 늘어나면 자연히 인기가 높아진다. 결국 돈이 들고 도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논리로 맞섰지만, C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지루하고 답도 없는 대화였다.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K리그의 냉혹한 현실이다. 기업구단들도 모기업 계열사 또는 연관 기업이 아니면 제대로 된 스폰서 계약을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황이 이렇진대 태생부터 다른 도시민구단들의 형편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허술한 경영 마인드

그래도 A구단의 노력은 정말 인정할 만하다. 단순히 ‘돈을 쓰는’ 구조가 아닌, ‘돈을 버는’ 구조로의 변화를 조금씩이나마 추진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도시민구단들은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 결과 파생되는 문제는 발전의 정체다. “최대한 벌어서 쓰자”가 아닌, “최대한 아껴서 쓰자”는 소극적 경영목표를 설정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은 꿈꾸기 어렵다.

올 시즌 D도시민구단은 한해 운영비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지했다. 스폰서 확충과 자금 유치 등 거의 전부를 의존했다. 당연히 지자체의 입김이 거세졌다. ‘낙하산 인사’로 인해 잉여인력이 대거 양산됐고, 기대수익의 기본인 스폰서 유치에서도 자치단체장을 앞세워 지역연고기업들 위주로 공략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됐다. 기업이 원했던 수준의 홍보나 마

케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스폰서 예수도 부족했다. 자치단체장의 힘을 빌려 비교적 쉽게 돈을 끌어오다 보니 스폰서와의 확고한 유대관계도 성립되지 않았다. 당연히 다음 시즌 해당 기업을 지속적인 스폰서로 유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도시민구단들은 매 시즌이 시작될 때면 한해 예산을 예상한다. 구단 통장은 모기업으로부터 일정 예산이 집행되는 기업구단들과 달리 0원에서 출발한다. 부정기적으로 벌여 부정기적으로 쓰는 구조가 대다수 도시민구단들의 현실이다. 연말마다 도시민구단들이 허덕이는 것도 그래서다. 돈을 끌어오지 못하면 해당 기간은 고스란히 적자다. 은행도 부족해 사채를 쓰기도 한다.

●절실한 수익구조 다각화

K리그,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어렵지만 요즘 도시민구단들은 특히 힘겹다. 도무지 ‘돈이 될’ 구석이 없다. 시도금고 자금, 향토기업들의 후원금이 사실상 자원의 전부다.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유럽과 달리 TV 중계권료도 없고, 배당수익도 없다. 관중입장수익은 아무리 최대한으로 잡아야 구단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기와는 거리가 먼 도시민구단들은 2~3%에 그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할 해법은 없을까.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욱 다양한 수익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기대하기 힘든 흑자경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절실한 전략이 수익구조의 다각화다.

홈 1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단들도 아직은 흑자경영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선수 몸값이 그만큼 치솟았기 때문이다. 한국프로축구는 경영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하는데도 선수 몸값은 타 종목처럼 뛰고 있다. 수익원을 확대하고 수익구조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나마 생존할 수 있음을 도시민구단들을 포함한 K리그 구단들은 깨달아야 한다. 현실이 비판적이라고 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강수일의 태극마크가 특별한 이유

“다문화가정 아이들 본보기 되겠다”

스피드·파워 겸비...슈틸리케호 FW 경쟁 자신감



강수일(27·포항·사진)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미완의 대기’로 평가 받았다. 키 184cm-몸무게 74kg의 좋은 신체조건에 스피드와 운동능력, 파워까지 겸비했지만 지독한 골 결정력 부재에 시달리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골 넣는 것 빼고는 다

잘한다’는 평가가 있었을 정도다.

2014시즌을 앞두고 임대선수로 포항 유니폼을 입은 강수일은 올 시즌 K리그 클래스(1부리그) 29경기에서 6골·3도움으로 프로 데뷔 이래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 같은 활약을 발판 삼아 올릴 슈틸리케 국가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기에 이르렀다.

강수일은 대표팀에 합류해 15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에서 전지훈련에 소화하고 있다. 특히 이동국(전북), 김신욱(울산) 등이 부상으로 빠진 터라, 슈틸리케 감독은 대체 공격수 자원 찾기에 열중하고 있다. 강수일로선 단숨에 대표팀 공격수 한 자리를 꿰차고 내년 1월 호주에서 열릴 아시안컵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 그는 “이곳(제주도 전지훈련)에 온 선수들의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다. 지금 입은 대표팀 유니폼을 벗고 싶지 않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강수일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한 장대일에 이어 다문화가정 출신으로는 2번째로 국가대표가 됐다. 주변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그의 대표팀 발탁은 큰 희망을 안겼다. 8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 풋살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드림킥 축구대회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그는 “내가 국가대표가 돼 인터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볼 텐데, 내 모습을 보고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가 무궁무진한 아이들이다. 편견 없는 세상에서 밝게 커가길 바란다. 더 열심히 훈련해서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호소한 미소를 지었다.

서귀포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AFC, 호주에 안전대책 강화 요구

내달 9일 아시안컵 앞두고 시드니 인질극 우려 표명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내년 1월 아시안컵을 개최하는 호주에 안전문제에 대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시안컵 개막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15일 호주 시드니 시내 카페에서 테러범에 의한 인질극이 벌어지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AFC 대표 알렉스 수사이 사무총장은 16일(한국시간) “16개 참가국 선수단뿐 아니라 많은 미디어 관계자들과 축구팬들이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AFC는 안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호주 조직위원회에 팀과 AFC 호텔 등에 대한 보안강화를 요구했다. 또 경기장과 훈련장에 대한 경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며 “호주 조직위원회, 호주 정부와 공조해서 좀더 강한 보안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안컵은 다음달 9일 개막해 31일까지 펼쳐진다. 16개국이 4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조 1·2위가 8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A조에서 호주, 오만, 쿠웨이트와 조별리그를 치르는 한국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27일 시드니로 들어가 한 차례 평가전을 치르는 등 9일간의 훈련한 뒤 1월 6일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는 캔버라도 이동한다.

수사이 사무총장은 “호주가 각종 국제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낸 경협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의 보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역대 최고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트위터 @glyong11

축구협회, 김호전 전 감독 성인리그 운영 부회장 영입



대한축구협회가 조직개편을 통해 김호전(63·사진) 전 울산현대 감독을 성인리그 운영 담당 부회장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아이파크-2004아테네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을 지낸 뒤 협회 전무로 활동하다 2009시즌부터 울산을 지휘한 김 전 감독은 2012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AFC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가와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다. 협회는 김 전 감독의 영입과 함께 한국 축구 중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헤트트릭 2033’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해 기존 1기획단·4실체제에서 2기획단·6실체제로 바꿨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 @simss23

대전의 ‘환골탈태’ 배워라

이런저런 잡음들로 K리그 도시민구단들의 위기론이 대두된 가운데 그나마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준 팀이 올 시즌 챌린지(2부리그) 우승으로 내년 시즌 클래스(1부리그) 복귀를 확정된 대전 시티즌이다.

1997년 향토기업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창단한 뒤 시민구공모로 2006년부터 시민구단으로 전환한 대전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상식적 구단 운영의 표본이나 다름없었다. 지역사회로부터의 끊임없는 구설과 파행, 직원(임원 포함)

18년간 12차례 사장 교체 등 비상식적 운영 아픔을 신임대표 부임...효율적 업무분담 등 180도 바뀌

교체 등 잠시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18년간 12차례나 사장이 교체됐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대전은 올해부터 긍정적 조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39세의 젊은 신임 대표이사(김세환)가 부임하면서 구단이 빠르게 정비됐다. 관심이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고자 선수단과 프런트를 철저히 구분했고, 효율적 업무 분담과 조직 운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 한때 은행 빚이 2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최악이던 구단 재정도 상당한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로 어지간한 빚은 모두 갚았고, 연말이 되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도시민구단 직원·선수단에 대한 상습적 임금체불도 사라졌다.

모래알처럼 조개져 있던 프런트도 모처럼 화합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아직까지는 희생과 손해가 강조되는, 결코 안정되고 좋은 근로환경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할 맛 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대전 구단 안팎의 평가다. 오랜 숙원이던 클럽하우스에도 입주해 선수들에게도 조금씩 ‘편함’은 팀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흑자경영은 아직까지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적어도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전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아마 최고 골잡이’ 황희찬 무리한 유럽행 논란

오스트리아 2부 잘츠부르크와 5년 계약
우선지명구단 포항 동의 무시하고 떠나

‘대형 유망주’로 각광 받아온 공격수 황희찬(18)의 유럽 진출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오스트리아 2부리그 잘츠부르크는 16일(현지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황희찬과 2019년까지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황희찬은 자신을 우선지명한 포항 스틸러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적을 추진했다. 포항 유스시스템(포철중·포철고)에서 성장한 황희찬은 아마추어 최고 골잡이로 평가받았고, 포항은 11월 13일 우선지명선수로 공식한 바 있다.

출판 유럽 진출을 희망한 황희찬을 잡기 위해 포항은 ‘임단 후 임대’로 가닥을 잡았지만, 양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12일 현재로 출국한 황희찬은 잘츠부르크 입단에 성공했다. 포항은 “황희찬 측이 일방적으로 이적을 결정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적용해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선지명선수’가 K리그로 복귀하려면 우선지명구단의 동의가 필

요하다.’ 그러나 황희찬에게는 이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지명 공식 시점인 11월 당시의 규정은 ‘우선지명선수 해외 진출 시, 향후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하고, 돌아오려면 5년 후 신인계약으로 원 소속팀에 입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황희찬 측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잘츠부르크와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6년간 자신을 성장시켜준 팀을 배반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남장현 기자